

# 인체 유해물질 초과 물티슈 판매

시중에 유통 판매 중인 일부 물티슈 제품에서 인체 유해물질과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나왔다는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가 발표에 대해 도내 네티즌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유아나 어린이를 둔 가정의 경우 이해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고 불안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여기에 최근 4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등을 통해 신생아와 임산부에게 유해한 화학성분으로 알려진 4급 암모늄 브롬 화합물인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들어간 40여종의 아기 물티슈 제품이 현재 유통되고 있다는 소식에 "믿을게 하나 없다"는 반응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7일 시중 유통 판매 중인 '인체 정결용 물티슈' 27개

## 4대 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등 통해 소비자자원, 27개 제품 대상 미생물 시험검사 결과

제품을 대상으로 살균 보존제 및 미생물 시험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CMT(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MIT(메칠 이소치아졸리논)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검출된 성분은 발작, 알러지 반응 등 이상반응 때문에 사용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사용 가능한 화학물질이다.

이에 전주&전북 알뜰마트 가페 회원인 '현현맘V87V\*\*\*\*'는 "물티슈를 안 쓸 수도 없고 진짜 뭘 써야 하나요"라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승현명현맘V81V\*\*\*\*'는 "모르고 선 물용 두박스를 사서 쓰는데 짹짹

다"고 썼다.

'열매V81V\*\*\*\*'는 "아 진짜 욕나오네요, 좋다고 해서 신생아부터 사용했는데..."라면서 분노했다.

문제가 없는 시중제품에 대한 불신 의견도 제기됐다.

'축복바다V81V\*\*\*\*'는 "너무 화가난다. 진짜 믿을게 하나도 없다. 시중 제품들이 다 그 모양일게 아니냐"고 적었다.

김제염마를 가페 회원인 '누리맘80\*\*\*\*'는 "여태 입도 닦아 주고 다 했는데 정말 욕 나올라고 하네요"라고 썼다.

세균이 검출된 제품회사의 경우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다.

'가을하늘\*\*\*\*'는 "유해물질이 없다고 해서 썼는데 세균 검출이라니 아쉽다"고 지적했다.

'보보88\*\*\*\*'는 "지난 6월 24일 생산된 제품만 기준치가 초과하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은 알걸이 없지 않겠느냐"면서 믿을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물티슈의 경우 개봉후 1~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하고 CMT/MIT 혼합물 관련 규정 시행일이 지난 2015년 8월 11일이기 때문에 이전 제조된 제품에는 같은 물질이 사용되었을 수 있으므로 구입시 제품 뒷면의 전성분을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신광영 기자

## 전주동물원, 초등생 대상 야생동물 진료체험

자연과 교감하는 생태동물원으로 재탄생되는 전주동물원이 어린 학생들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배우는 체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전주동물원(원장 김두일)은 9일 동물원내 동물치유센터(동물병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야생동물 진료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전주동물원이 생태동물원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12개 야생동물들이 무분별하게 먹이를 주거나 돌맹이를 던지는 관행적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야생동물 진료과정을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체험행사에서 참석한 어린이들은 동물병원 내 진료장비에 대해 배우고 후 초음파검사와 협압측정기, 청진기, 기생충검사 과정인 현미경 검사 등 야생동물을 직접 진료하는 체험을 실시했다. 또, 동물원 소개와 ब्ल로우 파이프주사 체험인 과녁판 맞추기 등도 진행됐다.

장차 수의사가 꿈이라는 설예원 학생(12·전주만수초등학교)은 "청진기로 토끼의 심장이 뛰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 제일 생생했다"면서 "야생동물은 무섭다는 생각만 했는데 이번 진료체험을 통해 야생동물과 동물을 더 사랑하고 동물들의 친구가 돼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남부시장에 장보러 왔어요 정황근 농촌진흥청장이 추석을 앞둔 지난 9일 전주 남부시장을 방문해 성수품을 구입하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전주시, 추석맞이 합동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전주시가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나기를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9일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덕진소방서와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맞이 민·관 합동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과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등을 대상으로 귀성길 안전운전과 명절연휴 가스밸브 누전기 차단 등 우리 집 안전관리요령, 화재예방요령 등이 적힌 홍보물 등을 배부했다. /김영재 기자

## '가동보 납품 비리' 수억 행진 브로커 항소심도 징역형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가동보(유압식 수문장치) 공사 수를 위한 로비 명목으로 납품업체에서 수억원을 받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9일 특가법 뇌물수수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주재)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이모(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8억53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3년까지 가동보 납품·설치공사 수주 위한 청탁 및 로비 명목으로 A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8억5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영재 기자

## '전주얼수', 정수기 물과 비교해 보세요

### 시, 2차 물맛 테스트

전주시가 용담호의 청정 1급수를 수원으로 한 수돗물 병입수, '전주얼수' 홍보에 나섰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9일 풍남문 광장에서 추석을 앞두고 남부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인근 한옥마을을 방문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주시 수돗물 브랜드 '전주얼수' 시음회와 물맛 테스트를 실시했다.

이날 시음회는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통해

수돗물의 음용률을 높이고, 지난 8월부터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공행사 등에 무상 공급되고 있는 '전주얼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변화된 반응을 알아보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주얼수와 정수기물, 시중에서 판매되는 먹는 샘물의 맛을 비교해보는 블라인드 테스트에 참가한 대다수의 시민들은 정수기물이나 먹는 샘물 못지않게 수돗물의 맛이 깔끔하며 좋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주얼수가 청정1급수 용담호

를 근원지로 해 안전하고, 미네랄이 균형 있게 함유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음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이날 맛본 수돗물 맛을 각 가정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수도관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용담호 상수원 수질이 1급수로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전라북도, 전주시, 진안군 등 관련기관이 서로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시는 수돗물 병입수 출시 기념 지난 7월 19일 중앙시장 세이브존 광장에서 1차 시음회 및 길거리 홍보행사를 열고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김영재 기자

## 전주시, 노송동 벽화그리기 사업 추진

### 지역주민-KT&G-35사단 공동

어둡고 칙칙했던 전주시 노송동 골목길이 아름다운 벽화가 그려진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재탄생된다.

전주시는 노송동 지역주민과 KT&G 전북본부, 35사단 전주대대 장병 등 유관기관, 자원봉사 대학생 등과 함께 하는 해피하우스 주민참여 사업을 통해 원도심 내 어둡고 칙칙한 노송동 골목길 5곳에 벽화를 그려 산뜻한 로드뷰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벽화골목 조성은 시에서 재로비를 지원하고, KT&G 전북본부 등 MOU체결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자원봉사 대학생 등 200여명이 재능기부와 노력봉사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봉사자들은 10일 담장 바탕정리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1일까지 바탕정리와 밑그림 그리기, 페인트 칠하기 등 3단계 작업을 통해 총 길이 200미터, 높이 2~4미터의 골목길에 벽화를 그려게 된다. /김영재 기자

## 정읍 I고교 야구부 코치 폭력 '충격'

### 술 취해 학생들 마구잡이 폭행에 학부모 '분통'

지난 2012년도 창단된 정읍시 I고등학교 야구부의 코치가 술을 마실 때마다 학생들에게 마구잡이로 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I고등학교 야구부에서 선수생활을 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는 9일 언론 매체를 통해 참혹하게 피었던 이들의 영당이 사진을 공개했다.

무자비한 폭력을 당한 야구부 학생은 지난 3월 숙소 근처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영당이 50대를 야구배트로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을 보낸 학부모는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아이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내리칠 수 있는지 놀랍다"며 "아이가 너무 아파서 앓을 수도 없을지 못했다"고 한다. 아무리 잘못했다라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심지어 체벌 받은 학생의 친구들 역시 "평소 담배도 피우지 않다가 주변 친구들에 의해 우연히 한번 핀 것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폭력을 당했다"

며 화를 냈다.

야구부 학부모들은 이러한 A코치의 폭행이 우발적인 실수가 아닌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전해 충격을 주고 있다.

A코치는 평소 연습 훈련 때나 동계 합숙훈련 등 여러 훈련 중 술에 취한 채로 참석해 아무 이유 없이 학생들에게 발길질과 주먹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구부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은 "코치님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볼 때마다 언제 우리에게 해코지 할지 몰라 두려움에 떨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사안을 접한 학교 측 관계자는 "우리도 오늘 기사를 통해 접하게 됐다. 최대한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코치의 근황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4월 달에 코치직에서 사임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